

내 권리를 찾는 첫걸음: 산재 신청 완전정복 로드맵

복잡한 서류와 회사 눈치는 이제 그만. 가장 중요한 순간,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신청, 법적 다툼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가이드는 환자인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1.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동 요령)**



**2.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심리적 장벽 해소)**

산재 신청, 이 5단계만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이 두 가지만은 꼭 하세요.



의사에게 말하기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Why: 의무기록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최초의 증거가 됩니다.



원무과에 요청하기

원무과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Tip: 당장 산재 처리가 어렵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1단계: 사고 직후 (골든타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진/동영상: 사고 현장, 사고를 유발한 기계나 장비, 다친 부위를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목격자: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를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CCTV: CCTV가 없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다른 동료의 휴대폰 영상 등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산재 신청의 핵심은 이 3가지 서류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내가 작성)

사고 경위 등을 직접 작성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산재 소견서 (의사가 작성)

주의! 일반 진단서와 다릅니다.
반드시 '산재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병원이 발급)

초진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모든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결론: 사업주 날인(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도장 없이도 산재 신청은 100%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 란은 비워두고 제출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공상 처리 (회사와 합의)	산재 처리 (공식 절차)
치료비 보장	합의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장	✓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액 보장
휴업급여	보장 없음 (일 못하는 기간 소득 단절)	✓ 평균임금의 70% 지급
후유장해	보장 없음	✓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
재발 시	보장 없음 (나중에 재발해도 책임 없음)	✓ 재요양 신청 가능

단기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재발까지 고려하면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 **WHO** :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HERE** : 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1. 병원 대행 (가장 편리)

대부분의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산재 신청 대행”을 문의하세요.



2. 직접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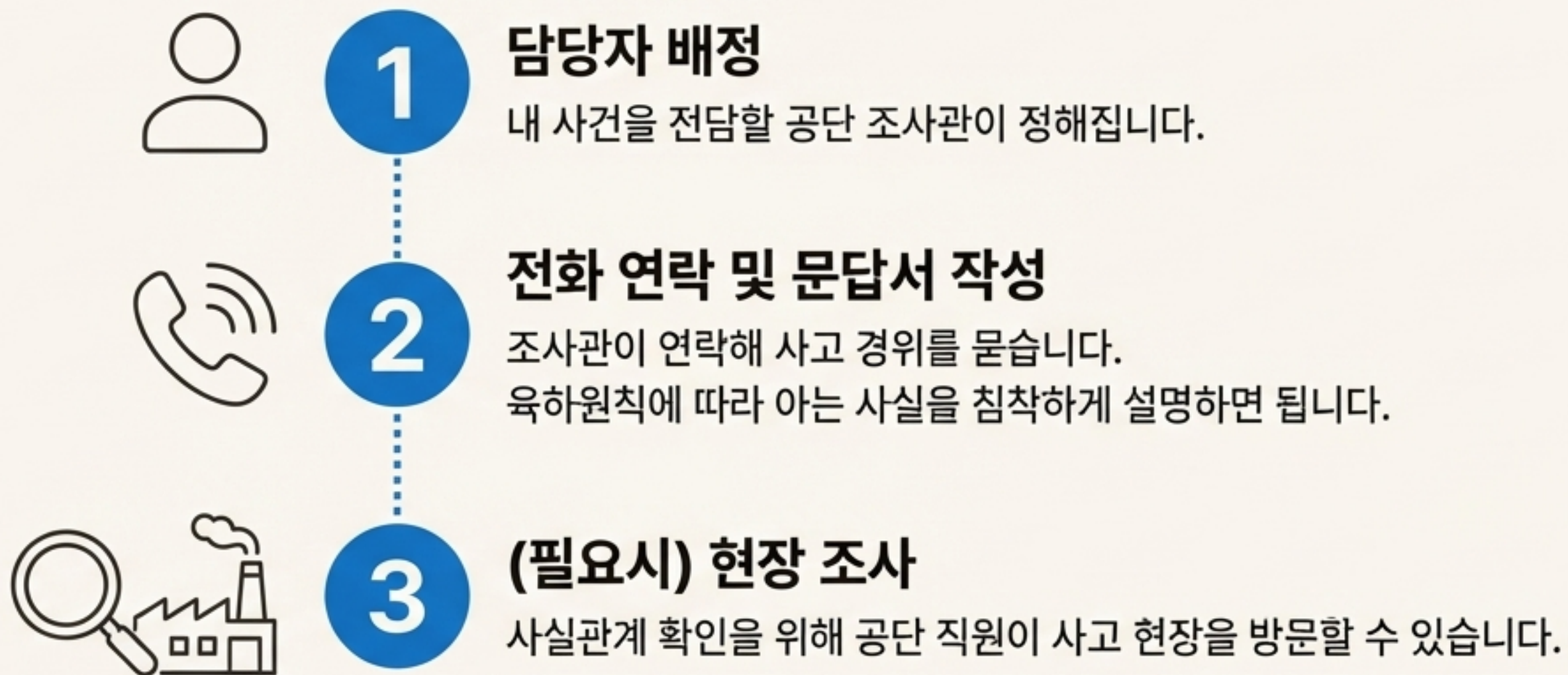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공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아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단계: 조사 및 대기

특별 케이스: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

What i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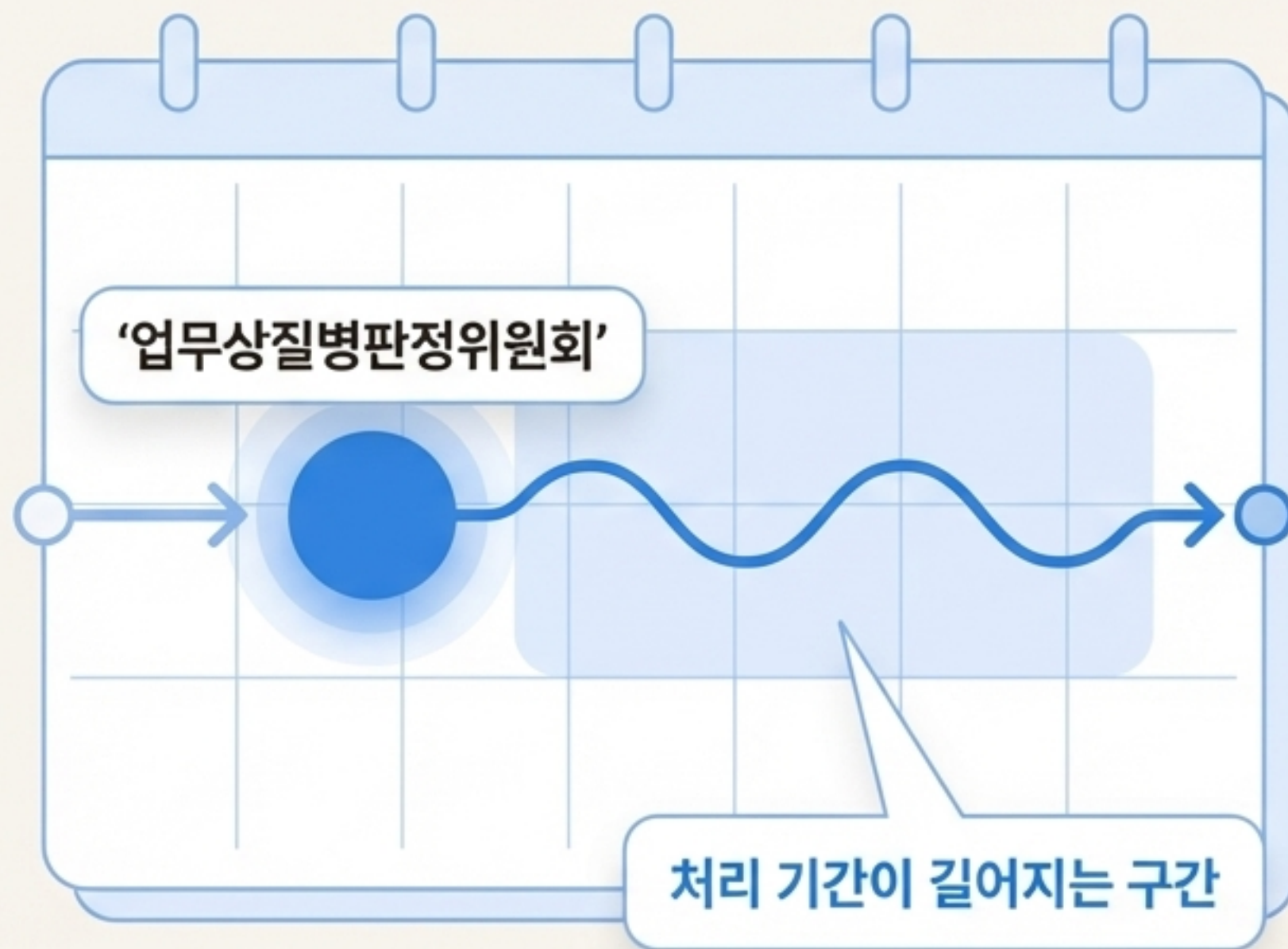
골절 같은 명확한 사고가 아닌, 업무로 인해 서서히 발생한 질병 (예: 허리디스크,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 등)

Key Difference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거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Important Notice

이 위원회 절차 때문에, 처리 기간이 일반 사고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개월 이상 소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결과 확인

승인: 축하합니다!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30417874 1234567890

요양 결정 통지서

성명	성명	성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보험종류	보험종류	보험번호	보험번호

승인

2021년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



1. '요양 결정 통지서' 받기

이 서류가 공식적인 승인의 증거입니다. 병원에 제출하세요.



2. 병원비 돌려받기

승인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병원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5단계: 결과 확인

불승인: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핵심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기록이 증거다: 병원 첫 방문 시 "일하다 다쳤다"는 말을 반드시 남기세요.



신청은 나의 권리: 사장님 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보다 산재가 유리합니다.



제출은 공단에: 신청서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승인은 끝이 아니다: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합니다.

산재 관련 모든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노동 관련 법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